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6. 26.(수) 06:00 < 6.26.(수) 석간 > 배포 2024. 6. 25.(화)

하계 전력설비 운영 및 송전선로 건설 현장점검

- '신가평 변전소' 전력설비 및 변환소 건설 현장 방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6.24~9.6)을 맞아 6월 26일(수) '신가평 변전소'를 방문하여, 전력설비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인근 HVDC* 변환소 건설 현장도 방문하였다.

*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

2004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가평 변전소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변전소로, 서울과 경기 북부의 전력공급을 책임져 왔다.

최남호 2차관은 한전 관계자들과 함께 변전소 설비를 둘러보고, "올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전력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력 설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피크시기에도 전력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인근 변환소 공사 현장에 들려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신가평 변환소는 동해안-수도권 HVDC 선로의 종점으로서 동해안으로부터 송전된 직류 전기를 수도권에 배분하기 위해 교류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가 완공되면 동해안 발전제약이 해소되고 반도체 산단과 신도시 전력 공급에 기여하는 만큼, 정부와 한전은 2026년까지 적기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이 자리에서 "송전선로 적기 건설뿐만 아니라 안전에 특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적기 건설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도 전력망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	책임자	과 장	최성준 (044-203-3930)
		담당자	서기관	임태섭 (044-203-393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